

Mathūra 佛衣의 樣式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ype of Mathūra Buddha's costume

東國大學校 家政學科

연구조교 : 安 明 淑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Myoung Sook Ahn

<目 次>	
I. 序 言	2. 通肩樣式
II. 樣 式	1) 通肩立像
1. 偏袒右肩樣式	2) 通肩坐像
1) 偏袒右肩立像	III. 結 言
2) 偏袒右肩坐像	註 및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Mathura and Gandhara Buddha's costume, and to observe the types and unique style of Mathura Buddha's costume.

I classified all types of Mathura Buddha's costume by and largely and researched the feature of each type and creases of costume with the focus criterion works of that.

The results are followed

① dress method of put on left shoulder; The early years

- a statue of standing: It is traced back to kaniska 2,3 years before
- a seated figure: It is traced back to the latter of ksatrpa period than a statue of standing

The expression of costume creases is a way of expressing pure Indolike of Mathura peculity

② dress method of put on right and left shoulder: the latter year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closeness with Gandhara Buddha's costume in method of creases.

Mathura is center of Buddha's statue and influences to Gandhara with each other. Also Mathura has developed peculiarly and at last Mathura made the masterpiece of Buddha's statue of Gupta period to acme of the 5 century.

I. 序 言

佛像이 실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佛陀 在世時

로부터 비롯되었다는 佛典의 내용과는 달리 美術史的인 입장에서 보면 佛像不表現의 時期를 거쳐서 대체로 佛滅後 4.5세기 지난 A.D. 1세기 경이다¹⁾.

佛像의 樣式은 時代의 흐름이나 지역의 特性에 의해서 많은 變化와 差異를 보이게 되었는데, 더구나 始源樣式에 있어서 전혀 그 造形傳統이 相異한 兩大地域(간다라와 마투라)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出發되는 二元性을 보이므로 해서 더욱 變化는 복잡하였다.

이 두 지역의 佛像樣式을 비교해 보면 造形基盤에 있어서도 Gandhara 양식은 Hellenistic art 에 중점을 두었고 Mathura 양식은 純印度的 造형 전통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후도 전자는 온대성이고 후자는 열대성으로 두 지역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初期樣式도 전자는 通肩, 후자는 偏袒右肩이며 옷감도 전자는 두꺼운 감을 사용했으며, 후자는 얇고 비치는 감이므로 전체적인 佛像의 분위기도 Gandhara 樣式은 중후하나, Mathura 樣式은 경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두 樣式은 造형 전통 뿐 아니라 생활습속도 전혀 相異한 지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였고 佛像의 樣式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²⁾.

印度의 kusan 時代에 해당하는 두 지역은 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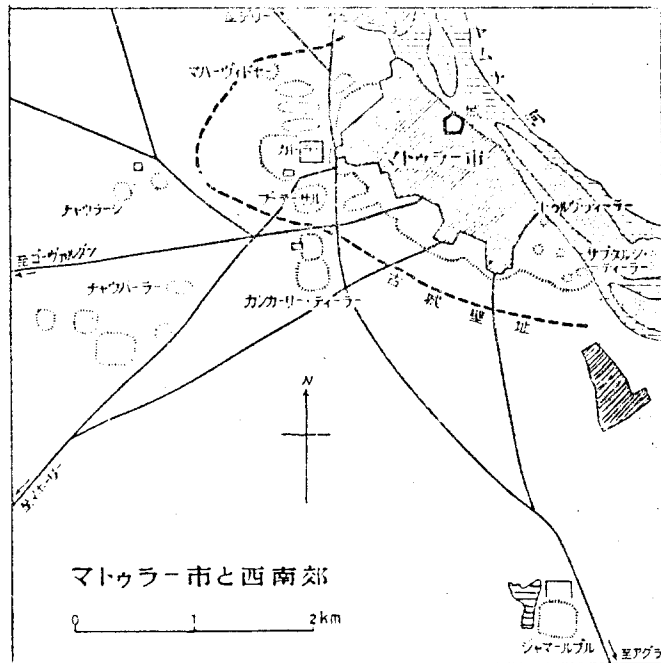
의 中心地이었고, 또 全時代를 通해서 相互 접촉을 유지해왔다. 간다라 佛衣에 대해서는 불의 종류와 형태, 옷감, 불의착용의 실제 의습표현의 특색 등을 중심으로 崔完秀³⁾의 연구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으므로 本 研究에서는 그와 비교되는 마투라 佛衣의 樣式에 대해 살펴보아 간다라 佛衣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Mathura 特有의 佛衣가 어떤 형태 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中心의 고찰로 사진을 中心으로 살펴보았으며, 本人이 실제 가서 보질 못하고 각종 서적에 있는 사진으로 연구대상을 했다는 것이 제한점이라 하겠다.

佛像이 많이 出土된 마투라市 주변의 遺跡圖는 <圖 1>과 같다.

Ⅱ. 樣 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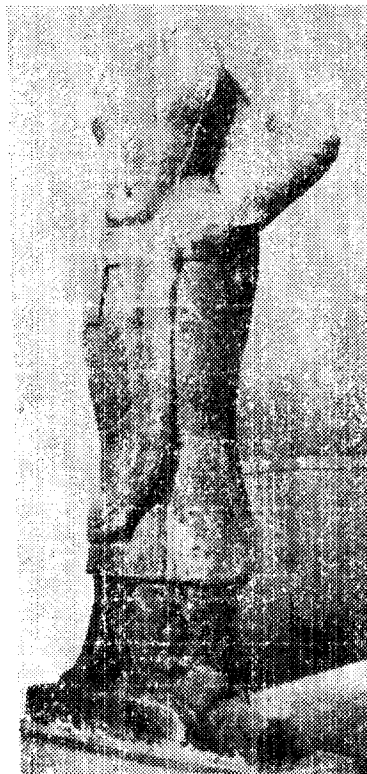
마투라 佛衣의 樣式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本人은 생각하는데 하나는 오른쪽 어깨를 덮지 않고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돌려서 왼쪽 어깨 위로



<圖 1> 마투라市의 부근 遺跡圖.



〈圖 2〉 「菩薩」立像(3年在銘) Sarnath 出土, 사르나도박물관, 2세기 초기



〈圖 4〉 佛立像(35年在銘), 라카누—出土, 마튜라 박물관, 2세기 후기.



〈圖 3〉 「菩薩」立像, Sahet-Mahet 出土, 켈커타 박물관.

넘겨 입는 着衣法인 偏袒右肩이고, 또 하나는 一枚布形의 長方布로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着衣法인

通肩이다.

마튜라 佛衣의 두가지 着衣法에 대해서 사진을 中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偏袒右肩樣式

오랜 시기에 걸쳐 佛像을 表現하지 못하는 전통 때문에 초기에는 佛像이라 하지 못하고 「菩薩像」이란 이름을 붙여 造成해 낸 Mathūra 佛像은 純印度的인 造形基盤 위에서 出現하였으므로, Greece 的인 造形기반에서 出現한 Gandhāra 佛像과는 양식적으로 全然相異한 것이다⁴⁾. 따라서 着衣法도 간다라 佛像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偏袒右肩과 透薄短衣의 형태로 初期의 것을 특징지을 수 있다⁵⁾. 偏袒右肩立像과 坐像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偏袒右肩立像

偏袒右肩立像의 代表作으로는 Sarnath 出土像<도



〈圖 5〉 佛立像, 마호리出土, 마투라박물관, 2세기 후기.

2), Sahet-Mahet 出土像〈도 3〉, 35年 在銘像〈도 4〉, 마호리出土像〈도 5〉 등이 있다.

圖 2, 3, 4, 5는 같은 偏袒右肩立像의 像樣式으로 투명하게 비치는 法衣를 偏袒右肩으로 두르고, 속에 下裙(니원승, loincloth)을 입고 그 위에 帶를 맨 것이다.

현재의 印度 Sari는 길이가 1.2m, 넓이가 5~6m 정도의 정사각형 布로 왼쪽 앞에서 주름을 천의 길이에 따라 적당히 잡는때 대개 10cm 길이로 잡고 앞으로 가지런히 하여 흐르는 듯한 모양으로 만드는데⁶⁾, 본 마투라 偏袒右肩立像에서는 주름의 간격이 더 좁아 약 3cm 정도의 규칙적으로 잡힌 것을 보아 옷감의 길이나 넓이가 인도의 sari보다 더 길고 넓었으리라 생각된다.

옷의 주름 처리도 간다라 佛衣와는 달리 옷의



〈圖 6〉 「菩薩」坐像(碑像). katra 出土, 마투라 박물관, 2세기 후기.

透薄과 함께 얇게 조각해 울이 촘촘한 간격의 평행선으로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기후의 차이에서 오는 의복습관이 아닌가 한다.

圖 4와 圖 5는 형식화가 진전되었고 下半身の 옷에 등성한 만곡선을 그린 褶線처리가 圖 2, 圖 3과는 다르다.

2) 偏袒右肩坐像

偏袒右肩坐像의 옷주름 표현은 Gandhara 式의 무겁게 흘러내린 듯한 웅기선이 아니라, 다급하게 일어난 웅기선 위에 다시 陰刻線을 輕快하게 해 접힌 듯한 모양을 보이는 데 이것은 옷감의 차이에서 기인한 褶文形態이다⁷⁾.

代表作으로는 palikhera 出土 菩薩坐像, katra 出土像, Jamálpur 出土像, Ahicchátra 出土像 등이 있다.

katra 出土像〈圖 6〉인 碑像形式의 「菩薩」坐像은 小形의 完存形으로 속살이 내비치는 透薄衣를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돌려 왼쪽 어깨 위에 걸쳐 입음으로써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가슴을 노출시



〈圖 7〉 四天王奉鉢圖, 靑黑色片岩, 라호르 중앙박물관, 2세기.



〈圖 8〉 佛坐像(碑像), Jamalpur 出土, 2세기중기.

킨 着衣法을 보이는데 그 길이와 넓이가 짧아져 정강이 중간쯤까지 밖에 내려오지 않아 坐像에서 양쪽 발의 노출이 많은 것으로, Gandhara 初期樣式的 양다리가 옷자락 속에 은폐된 것과는 다른 것이다〈圖 7〉.

右臂에서 비스듬히 흐르는 자연스런 옷주름과 양다리 아래에 깔린 布의 주름, 또 衣의 緣과 도련을 닿는 線 등 모두 雄勁하고 예리함이 있고, Jamalpur 出土像〈圖 8〉의 약간 硬化의 경향을 갖은 옷주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⁸⁾.



〈圖 9〉 간다라佛立像. 페사와르박물관(?)

2. 通肩樣式

양쪽 어깨를 法衣로 덮은 通肩樣式은 立像과 坐像이 있으나 立像 보다는 坐像이 많다.

通肩式의 佛衣는 간다라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고, 初期의 偏袒右肩式의 中印度 樣式과 여러가지 혼합·변모해 Gupta 樣式的 모태가 된 것이다⁹⁾.

Mathura 後期에 Gandhara 의 영향을 받아, 通肩의 佛像이 많이 出現하고 衣는 두꺼운 옷감이므로 布의 넓이는 좁아지고 주름 넓이는 넓어져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衣文線을 나타낸다. 즉 서기 3세기 前半頃에 이르면 Gandhara 佛像〈圖 9〉樣式的



〈圖 10〉 佛立像, 마투라박물관, 2세기 후기.

강력한 영향으로 着衣法이 變化를 일으켜 간다라式의 厚織通肩 着衣法이 받아들여진다.

通肩式 佛衣는 가슴 앞에 표현한 주름에 의해 U字形衣文型和 扇形衣文型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宮治昭¹²⁾의 분류 방법과 同一하게 본 것이다.

U字形衣文型〈圖 11〉은 가슴 앞에 U字形으로 주름선을 반복한 것으로, kaniska 즉위 전후경의 kusan 초기양식이고, 扇形衣文型〈圖 12, 13〉은 가슴 앞을 中心으로 하여 부채를 편 것 같은 주름 곡선을 묘사한 것으로 kusan 後期 樣式에 해당 한다.

1) 通肩立像

代表的인 것으로 마투라 박물관에 소장된 양타리를 缺失한 佛立像은〈圖 10〉容貌와 姿勢는 마투라式 佛立像인데 衣服은 간다라式의 通肩厚織衣의 表現이다¹²⁾. 通肩으로 두른 大衣는 偏袒右肩像과는 달리 두꺼운 느낌으로 表現하였으나 아직 세련되지 못한 표현 방법이다.

斜行의 포물선을 갖는 간다라 佛衣의 옷주름과



〈圖 11〉 「菩薩」坐像(51年在銘), Anyor 出土, 마투라박물관, 2세기 말기

는 다른, 물결 무늬와 같은 가지런한 橢圓形線의 중첩으로 옷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름선 자체도 간다라式으로 주름선을 隆起시킨 것이 아니라 Mathura 式으로 주름선을 판 것이다¹³⁾. 褶線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正行의 포물선을 앞뒤로 陰刻하여 등간격으로 배열하고 있어 모방의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 특징적인 것으로 목 있는 곳에서 衣의 緣을 꺾어 反轉시켜 collar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옷을 입을 때 생긴 drapery에 의한 것일 것이다.

두꺼운 옷감, 襟狀反轉形 等 衣의 表現에 간다라 영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나, Gandhara의 사실적, 자연적인 주름방식을 本 像들에서는 관념적, 장식적인 옷주름으로 배치해 간다라의 주름방식을 Mathura 風으로 음미한 것이다.

2) 通肩坐像

최완수氏는 通肩坐像을 옷주름의 취급방식에 의해 二類로 구분하였다¹⁴⁾.



〈圖 12〉 佛坐像, Sitala-Ghati 出土, 마투라박물관, 3세기 전기.

本 연구에서도 通肩坐像을 U字形衣文型和 扇形衣文型の 특징에 의해 두 종류로 구분해, 전자는 一類 후자는 二類로 분류해 살펴보겠다.

① 一類

一類의 특징은 通肩式 佛像의 衣文線이 U字形衣文을 주로 나타내었는데 代表作으로 51年在銘의 Anyor 出土의 「菩薩」坐像이 있다(圖 11).

通肩의 大衣는 목둘레가 反轉形을 나타내고, 옷주름은 등간격으로 평행하는 주름곡선이고, 깊이 있는 음각선에 의해 입체감이 蘇生하게 되었다. 衣의 늘어진 部分이 結跏趺坐한 양다리를 완전히 덮었고, 오른쪽 팔에서 늘어진 衣의 緣이 정면에서 U字形을 만들면서 衣端에 나란히 연속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옷주름은 陰刻은 있으나 굵직하게 조각했고 다시 線과 線 사이를 몇개로 나누어 두꺼움을 강조하였다.



〈圖 13〉 佛坐像, Sahet-Mahet 出土.

② 二類

二類의 특징은 衣文線 表現이 扇形衣文型으로 된 것으로, 옷주름은 신체 앞부분에서 오른쪽 반은 내려뜨린 주름곡선으로 표현하고, 왼쪽 반은 어깨에서 약간 경사지게 아래로 흘러내리는 직선적인 褶線으로 하여 結跏趺坐한 양다리를 衣로 감싸지 않고 偏袒坐像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代表作으로는 Sitalā-Ghati 出土像과 Sahet-Mahet 出土像이 있다.

Sitalā-Ghati 出土(圖 12)의 佛坐像은 衣褶를 경쾌하고 예리한 응기선으로 두꺼운 옷감이 가지던 重厚한 표현은 없애고 마투라式 衣褶配列을 그대로 계승하여 偏袒右肩 자리에는 斜行의 포물선을 중첩시키고 오른쪽 어깨에 Mathūra 고유의 垂直褶線을 배열하였다. 즉 陰刻線으로 처리되던 衣褶線이 隆起線으로 陽刻되었다¹⁵⁾.

Sahet-Mahet 出土 佛坐像(圖 13)은 通肩으로 덮힌 衣文이 두꺼운 육체를 덮어 감추었고, 옷주름은 가슴 앞에서 왼쪽 반은 어깨에서 직선으로 내려졌고, 오른쪽 반은 垂下해 다시 상승하는 주름곡선을 묘사했지만, 극히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衣文線이다. 주름과 주름 사이를 규칙적으로 비스듬하게 깊이 절단한 계단상의 表現으로 주름선의 陰刻技法이 보다 심화되어 입체성을 띄우므로 조금은 뒤늦은 양식일 가능성이 보인다.



〈圖 14〉 佛立像, 뉴-델리 박물관, 5세기 (Gupta)

Ⅲ. 結 言

以上 kusān 時代 Mathūra 佛衣의 全盤에 걸쳐서 양식別로 분류, 검토하고 각각의 유형에 기준적인 作品을 中心으로 樣式的 특징과 옷주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기술한 양식別 고찰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偏袒右肩은 初期時代에 나타난 것으로 立像은 kaniska 2, 3年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坐像은 立像보다 오래된 ksatrapa 時代 後期로 올라가는 것으로 옷주름 表現이 Mathūra 特유의 純印度的인 표현으로 규칙적인 좁은 주름을 나타내었다.

通肩은 後期時代에 주로 나타난 것으로 樣式的

으로 옷주름 表現방법에 있어 간다라의 衣와 긴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通肩 계통이 後 Gupta 時代에 있어서 마투라 佛衣의 새로운 전개에 연결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Mathūra는 佛像造成의 中心地로서 Gandhara와 함께 서로 영향을 미쳐가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드디어 5세기를 정점으로 하는 Gupta 時代 佛像〈圖 14〉의 結작을 만들어 내는 원류가 되었다.

Mathura 佛衣와 Gandhara 佛衣의 差異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조형기반, 기후, 생활습속, 옷감 등 근본적인 차이는 물론이고 옷주름 表現에 있어서도 Gandhara 佛衣보다 Mathura 佛衣가 주름 간격이 더 촘촘하게 나타낸 것이 많은데 이는 옷감 자체가 간다라는 두꺼운 옷감을 사용하고 마투라는 얇고 비치는 감을 사용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확실치는 않지만 Mathūra 佛衣가 옷주름을 규칙적이고 좁은 주름을 잡아야 했으므로 法衣의 길이나 넓이가 Gandhara 佛衣보다 더 길고 넓어야 되었을 것 같다.

간다라 佛像과 마투라 佛像의 相異한 樣式은 後에 印度的으로 융화되어 Gupta 佛像 樣式이 出現¹⁶⁾하게 된다.

註 및 參考文獻

1. 崔完秀, 「간다라佛衣考」, 佛敎美術, 1973, p. 321.
2. 宮治昭, 「인도美術史」, 吉川弘文館, 1967年 pp. 91-95.
3. 崔完秀, 전계논문
4. 高田修, 佛像の起源, 岩波書店, 東京, 1967, p. 322.
5. 崔完秀, 「二重着衣法考」, 考古美術 154, 155, 1982, p. 48.
6. 高田修, 전계논문, pp. 327-330.
7. 宮治昭, 전계서, pp. 91-95.
8. 宮治昭, 「인도彫刻史におけるグプタ樣式の生成」, 불교예술 130호, pp. 11-31.
9. 高田修, 전계논문, pp. 334-336.

10. 宮治昭, 전제 논문, pp.13-14.
11. 최완수, 「二重着衣法考」, p. 50.
12. 崔完秀, 「佛像研究」, 知識産業社, 1984, pp. 123-124.
13. 최완수, 「二重着衣法考」, pp.336-340.
14. 최완수, 「佛像研究」, p.126.
15. 변광순, 「韓國佛像衣褶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1979, p.2.
16. 肥塚隆, マトゥラーにおけるグプタ古典樣式の展開, 불교예술 156증대호, 1984.
17. 더트리히제켈 / 白承吉譯, 열화당 미술선서 49, 1985.
19. 井筒雅風, 袈裟史, 雄山閣, 소화 57年
20. _____, 法文史, 雄山閣, 소화 57年